

'살림의 문화, 마당의 예술' 미술동인 '두렁' 40년

두렁, 앞뒤
미술동인 두렁 컬로키움 편찬모임

"미술은 노동과 관념, 물질과 의식의 총체로서 일하며 살아가는 전인적 삶의 모습중 하나이다. 그것은 미술을 위한 미술(또는 삶)에 매이지 않고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획득해내는 총체적 표현의 통로이다."

1980년대는 민중미술의 시대였다. 특히 1982년 10월, 홍익대 미대 탈반·풍물반 출신 학생들이 중심으로 결성된 미술동인 '두렁'은 이듬해 창립 예행전에서 '공동체 기반 미술 지향'에 대한 선언을 했다. 1984년 4월에는 경인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2년 활동을 끝으로 '두렁' 동인들은 미술계가 아닌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 농민으로 살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

'한국 미술사의 재구성'이라는 부제를 붙인 신간 '두렁, 앞뒤'는 1983-1984년 활동한 미술동인 '두렁'의 40년 스펙트럼을 한데 모은 최초의 출판물이다. 지난 2014년 5월에 열었던 '두렁' 30주년 컬로키움(Colloquium·발표자가 발표를 한 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조율해 나가는 토론방식) 자료를 정리하고, 동인 16명의 구술(口述)을 풀어내며 도판 1000장과 주석 170개를 붙여 808페이지의 책으로 묶어냈다.

미술평론가 김중길은 '미술동인 두렁 컬로키움을 열다'라는 글에서 "미술동인 두렁의 회원들은 큰 밑동치에서 굵은 줄기를 띄워 내듯 여러 갈래를 트며 분화해 나갔다. 그들은 대학에서 탈패와 민화반으로 활동했으나, 현장에서는 작가이자 노동자였고, 노동자들이 주된 한 것들을 생산하는 공방의 책임자였다"고 말한다.

'두렁' 동인들의 구술은 진솔하다. 구술한 동인은 16



박홍규 작가의 목판화 작품 '내 청춘의 비망록' (2021년 작).

(수류산방 제공)

명(라원식·김노마·김명심·김봉준·김주형·김진수·박홍규·성효숙·양은희·이기연·이억배·이은홍·이정임·이춘호·장진영·정정엽)이다. 198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역사의 격랑을 헤쳐온 여러 동인들의 인생과 예술 이야기는 씨줄과 날줄이 돼 한 예술가의 초상이자 역동적인 민중미술사 흐름을 생생하게 구성한다.

김봉준은 "당시 '두렁'의 미학을 한 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살림의 문화, 마당의 예술'이라고 부르고 싶다. '마당 미술', '마당예술'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예술의 모색으로서 두렁이 걸어 온 길은, 일생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기나긴 길이었으니 당연한 미완의 길이었다"면서 "소멸되어 버린 두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배웠던 것인가도 각자 자기 삶으로 풀어야 할, 예술하는 이들의 일생의 숙제일 것이다"고 밝힌다. 농민운동에 투신한 박홍규(박소래)는 농민회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던 39살때 다시 붓을 잡았다. 판화

'무명동학농민군' (2008년)이 히트했고, 동학농민혁명 120주년(2014년)때 본격적인 동학 판화 순회전을 연다. 탄핵총투쟁 집회와 세월호 규명시위에서도 동학 판화 작품이 주목을 받았다. 1980-2000년대를 관통하며 '두렁' 동인들이 고민하고 제기했던 예술적 방법론에 관한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기연은 '두렁의 축'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예술 본연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그리고 민족적인 형식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 그 둘 사이에서 참여한 사람에 따라 농도가 좀 다른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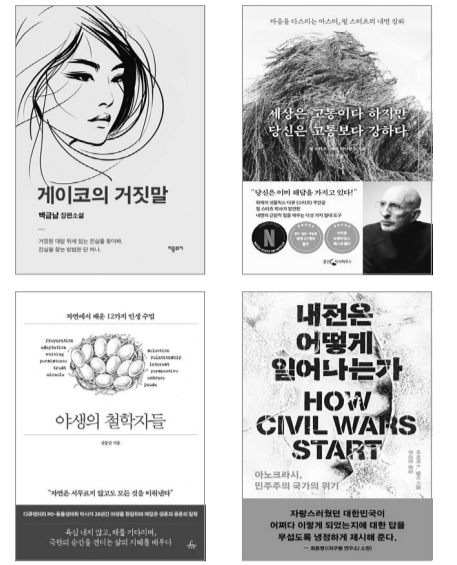
한편 수류산방은 오른쪽 페이지에 구술 본문을, 왼쪽 페이지에 관련된 도판과 주석을 배치해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 편집을 했다. 또한 표지와 속지를 친환경 종이로 사용했다.

(수류산방·7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게이코의 거짓말=인간을 포용하는 소녀 게이샤 코우시는 사랑의 존재에 대해서 반문한다. 한 인간 존재를 버렸음에도 그로부터 되돌아오는 사랑의 힘은 절대적 편애와 인간애를 증명한다. 타국 소녀에서 드러난 우리들의 민낯은 인간의 큐비즘적 양상과 회복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코우시는 한국으로 와서 자신이 행복에 등 돌리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소설 속 그녀는 부족함을 성찰하고, 앞으로 진전하는 인간만이 미래를 누리게 됨을 강조한다. <피플워치·1만8000원>



▲세상은 고통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강하다=문제에 봉착했을 때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쌓은 전문 지식과 정보, 교수들의 방대한 임상 경험을 들여다봐도 확고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 주목한다. 과거 속의 원인을 파헤치며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것보다, 당장 행동을 통제하고 변화를 이뤄낼 때 비로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도구로 제안하는 '탈'에는 평온, 끈기, 자유 등이 포함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500원>

▲아생의 철학자들=28년간 아생을 관찰하며 깨달은 공존, 생존의 철학을 담았다. 겨울에 하는 짝짓기를 위해 여름부터 헛웃음을 피우고 토질에 따라 꽃 색깔을 바꾸는 산수국의 적응 등 다양한 예시를 든

다. 매미 약충은 수년간 땅속에서 기다리다 날개 편 채 세상을 누빈다. 비를 맞으면 서도 알을 부둥켜안은 쇠제비갈매기도 있다. 총 12가지 동물 키워드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인생의 진리,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추수밭·1만8000원>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확고한 안정성을 지녔다고 오해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겨냥한다.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가 독재와 민주주의의 중간적인 상태인 '아노크라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민주주의가 쇠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속화되고 복잡다단해지는 세계 위험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열림책들·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귀신상점1=춤추는 빨간양말과 용비를 파우치 필통, 인싸들만 착용하는 여우 눈알 안경 등 신기한 물건으로 가득 찬 귀신 상점이 있다. 진귀한 요술 도구들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눈물을 값으로 치러야 한다. 고대 한국 신화의 정수인 '삼승활판봉포어'를 통해 고전문학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아이들 문해력을 증진시킨다. <열림원어린이·1만5000원>

▲위풍당당 여우 꼬리6=평범한 초등학교 생처럼 보이지만 몸속에 구미호 피가 흐르는 단미. 반려동물이 죽자 상실감에 빠진 아빠를 보고 단미는 무기력을 느낀다. 게다가 수상한 존재인 도래이는 위험한

도발을 감행하고, 래아의 핏에 넘어간 단미는 귀한 여우 구슬을 바치며 물품으로 내다 버린다. 여우 구슬의 힘은 점자 견잡을 수 없는 사건을 발생시킨다. <창비·1만5000원>

▲탈실 세 뭉치로=어느 날 아빠와 엄마가 추방이라는 어려운 말을 하더니, 이튿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난다. 여름이 끝난 뒤 도착한 나라에는 입을 수 있는 스웨터 색깔마저 정해져 있다. 똑같은 생각에 같은 모양까지 반복되는 일상에 길들여지던 사람들은 말을 잃어간다. 통제된 국가관이 일상에 끼치는 영향을 동화적으로 그린다. <주니어RHK·1만5000원>

소설가들, 마티스 그림서 영감 얻다

마티스×스릴러

정해연·조영주 외 3인 지음



화사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을 그려온 앙리 마티스(1869-1954)는 말년에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붓을 쥐기 어려워 손에 붓을 묶은 채 그림을 그렸던 그는 이마저도 힘들어지자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 붙이는 '컷 아웃' 작업을 했다.

푸른 색 바탕에 검은색 인간의 모습이 담긴 컷 아웃 작품 '아카루스' (1947)를 본 소설가 조영주는 가슴의 붉은 점에서 '고여 있는 피'를 연상했고,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 '유서'를 써내려갔다. 문학상을 수상한 후 두번째 소설을 써내지 못하는데다 경제적 어려움마저 겹쳐 고통받는 소설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빠른 전개와 공금증을 유발하는 스토리 덕에 순식간에 읽힌다.

흥미로운 소설집 '마티스×스릴러'는 한국을 대표하

는 다섯 명의 스릴러 작가가 마티스의 작품 중 영감을 받은 그림을 골라 매혹적인 이야기를 창조한 책이다. 정해연·조영주·정명섭·박산호·박상민 작가는 '피아노 레슨', '아카루스', '이본 랑베르양의 초상', '구르고 남작 부인의 초상', '화가의 가족'을 골라 상상력이 빛나는 단편 소설을 썼다.

안락한 거실에서 체스를 두는 두명의 소년 등장하는 평화로운 느낌의 '화가의 가족' (1911)에서 작가는 역설적이게도 밀실살인 사건을 상상했다. 박상민의 '체크 메이트'는 비바람이 치던 밤 고립된 섬에서 시체를 발견한 두명의 소년과 남자와 여자 9명이 경찰이 오기 전까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범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마티스의 '장가의 바이올리니스트'에서 떠올린 또 다른 캐릭터도 등장한다.

작가가 소설 속 화자인 대학생 김하빈과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상쩍은 남자 반태호 이야기를 또 다른 단편으로 써낼 것이라고 하니 이를 기다려봐도 좋을 듯하다.

정해연 작가가 '피아노 레슨' (1916)에 영감을 받아

쓴 동명의 소설은 친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고등학생 김윤철과 이 사건을 맡은 프로파일러 서지혁이 등장한다.

'이본 랑베르양의 초상' (1914)을 처음 본 정명섭 작가는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죽었다가 깨어난 좀비를 떠올렸다. 소설 '좀비 여인의 초상'은 복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가운데 살아나 암약하는 좀비들을 막기 위해 폐쇄구역에 침투한 트래저헌터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박상민 작가의 '사냥의 밤'은 '구르고 남작 부인의 초상' (1924)을 보고 스토리를 만들었다. 유튜버로 사제업자들에게 빚독촉을 받는 김기준이 급하게 결혼해야 할 처지에 놓인, 그림을 사랑하는 상속녀 서아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된다.

각 작가의 작품 앞에는 소재가 된 마티스의 그림들이 실려 있어 소설을 읽기 전 독자 스스로도 즐거운 상상을 해볼 수 있다.

<마티스블루·1만8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